전인지 '베어 트로피'

LPGA CME 챔피언십 18번홀 3m 버디 '역전쇼'

시즌 18홀 평균 69.583타…신인왕 이어 2관왕

함평 골프고 출신 전인지(22·하이트진로)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9)와 치열한 경쟁 끝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6 시즌 최저타수상을 받았다.

전인지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40야드)에서 열린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날 2타를 줄여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적어냈다.

시즌 최종전을 7위로 끝낸 전인지는 이번 시즌 18홀 평균 69.583타를 쳐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베어트로피를 받았다. 전인지는 올 시즌 신인왕에 이어 최저타수상까지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사진〉

리디아 고는 시즌 마지막 대회를 합계 11언더파 277타, 공동 10위로 마치면서 평균 타수 69.596타를 기록, 간발의 차로 최저타수상을 전인지에게 내줬다.

우승 경쟁만큼이나 치열했던 최저타 경쟁이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전인지에 평균 2타 정도 앞섰던 리디아 고는 4라운드 전반에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적어내 크게 흔들렸다.

리디아 고는 10번홀에서 3개홀 연속 잡아내더니 16번홀(파3)에서도 버디를 추가, 최저타수상을 예약하는 듯했다. 더욱이 리디아 고와 같은 조에서 경기한 전인지는 14번홀까지 버디 2개,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로 1타를 잃고 있었다. 그러나 17번홀(파5)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1~3라운드 내내 이 홀에서 버디를 잡았던 리디아 고가 4라운드에서는 갑작스러운 샷 난조로 보기를 적어낸 것.

전인지는 이 홀에서 버디를 잡아 최저타수상 가능성을 살렸다. 전인지는 18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3m 붙였고, 리디아 고는 파를 적어내고 먼저 홀아웃했다. 전인지가 버디 퍼트를 침착하게 성공하는 순간, 올 시즌 평균 타수 1,2위 순위는 뒤바뀌었다.

전인지는 경기 뒤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마지막 퍼트가 베어트로피를 결정하는 지는 몰랐다"며 "정말 대단한 퍼트였다"고 말했다.

0.013타차로 베어트로피를 놓친 리디아 고는 "후반에는 퍼트가 잘 돼 끝까지 열심히 싸웠다. 전인지의 피니시는 정말 대단했다"며 전인지의 수상을 축하했다.

/연합뉴스

"강한 모습으로 안방 지키겠다"

KIA 이홍구 '후회없는 2017시즌'을 향하여

2년차때 마음만 급하고 잦은 실수…제 역할 못해

정신 재무장해 군 입대전 미련없이 내 야구 할 것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KIA 포수 이홍구가 '후회 없는 2017시즌'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많은 2016시즌이었다. 겨우내 힘들게 준비했던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끝난 시즌이기도 했다.

2015시즌 12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리면서 장충고 1년 선배인 백용환과 타이거즈 첫 포수 동반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내던 이홍구는 올 시즌 9개에서 홈런 레이스를 멈췄다. 홈런은 줄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냈다. 0.216(222타수 25안타)의 타율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 시즌은 0.266(241타수 64안타)로 타율이 올랐다. 타점도 39에서 45로 늘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실수 속에 불안한 시즌을 보냈다. 꿈에 그리던 와일드카드 결정전 무대에도 서보지 못했다. 와일드 카드 결정전 엔트리에서 아예 이홍구의 이름이 빠졌다.

이홍구는 "지난해에는 멋도 모르고 야구를 해서 오히려 편하게 잘됐던 것 같다. 야구를 좀 알고 하려니까 마음이 급했다. 괜히 부담을 느끼면서 내 야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준비를 잘했는데 막상 시합에 들어가면 잘 안됐다. 마음도 몸도 내 뜻대로 안 됐다. 지난 시즌보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컸던 것 같다"고 아쉬움 많은 2016시즌을 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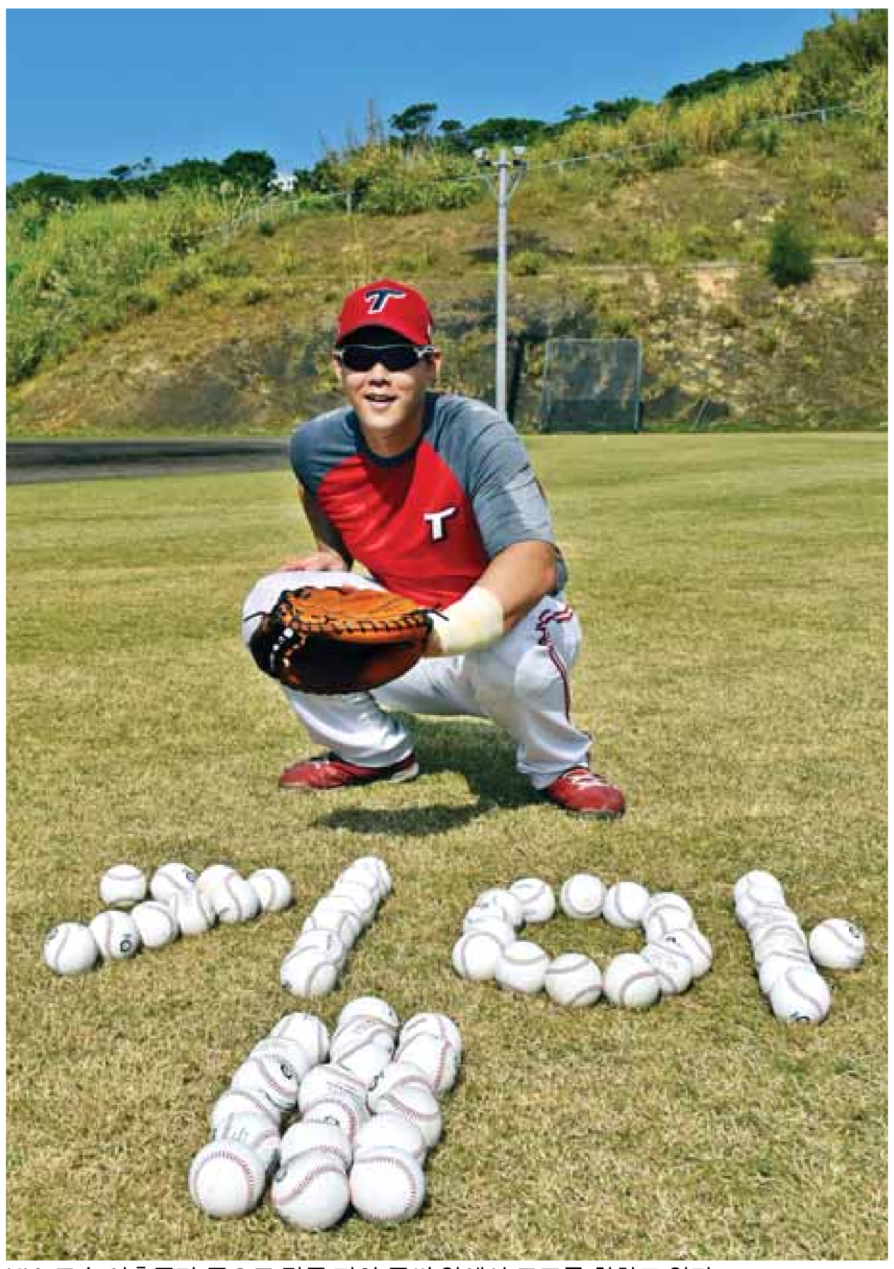
올 시즌을 앞두고 이홍구는 "마음이 불안해서 쉴 수가 없다"면서 혹독하게 자신을 내몰면서 시즌 준비를 했다. 그러나 준비했던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아쉽게 시즌을 마감했다.

'마음'에서 답을 찾은 이홍구는 '후회 없는 시즌'을 목표로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백용환의 무릎 부상 등 팀 상황으로 1년 더 군입대를 미룬 만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훈련을 하고 있다.

이홍구는 "야구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는 하다. 내년 시즌이 끝나면 당분간 군대에 가야하기도 하는 만큼 많은 것에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대로 자신있게 야구를 하겠다"며 "올 시즌 부담을 느끼고 긴장을 해서 내 야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후회가 많이 됐다. 내년 시즌에는 미련 없이 내 야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타격이나 수비 등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변화를 주면서 훈련을 하고 있지는 않다. 정신적인 측면이 중요한 만큼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있다"며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에 괜히 내가 위축이 됐던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은 극복해야 한다. 열심히 훈련을 해서 자신감을 얻고, 강한 모습으로 안정된 포수로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키나와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포수 이홍구가 공으로 만든 기아 글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선수는 "달콤한 비"…코치는 "야속한 비"

축구장 달리기로 훈련 종료

김 감독 "야구만 잘하면 돼"

"그래 야구만 잘한다면…."

밝은 표정으로 가방을 챙겨든 KIA 선수들과 달리 김기태 감독은 생각이 많은 얼굴이었다. 오키나와에 내린 비를 보는 다른 표정, 선수들에게는 '달콤한 비'가 됐지만 코칭스태프에게는 '아쉬운 비'였다.

21일 KIA의 오키나와 캠프는 오전 훈련만 소화하는 '하프데이'로 진행됐다. 전날부터 많은 비가 내렸던 오키나와에 이날 오전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정상적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캠프가 마련된 킨 구장에 따로 실내 연습장이 없는 만큼 선수들은 숙소 웨이트장에서 웨이트 훈련을 한 뒤, 숙소 축구장에서 러닝을 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상 고온으로 고된 캠프를 치러온 선수들은 오후 휴식을 얻은 만큼 밝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19일 하프데이 이후 20일 휴식일이었던 일정을 생각하면 코칭 스태프는 애가 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투수조는 이틀 연속 하프데이 일정으로 컨디션을 조절한 뒤 휴식일을 보냈던 만큼 이대진 코치에게는 달갑지 않은 비가 됐다.

이날 김기태 감독은 선수들의 웨이트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20여 분 거리의 킨 구장을 찾아 경기장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지만, 흐린 하늘에 비가 계속되자 결국 선수단에 휴식을 선물했다.

밝은 표정으로 숙소로 향하던 홍건희를 붙잡은 김기태 감독은 "하프, 하프에 휴식날 그리고 하프데이네"라며 한숨을 쉰 뒤 "괜찮다. 야구만 잘하면 된다"고 주먹 인사를 나눴다. /김여울기자 wool@

KIA 한승택(오른쪽부터), 남재현, 홍건희 등 마무리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이 20일 일본 오키나와 카리유시 리조트 축구장에서 러닝훈련을 하고 있다.

KIA 김주찬 지방종 수술…재활 2~3개월 소요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주찬이 지방종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치료와 재활에는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KIA 김주찬이 21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왼쪽 허벅지 부분에 생긴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는 3년 전부터 관찰을 해왔던 부위로 올 시즌 상태가 악화하면서 수술을 받게 됐다.

김주찬은 3~4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후 치료와 재활훈련을 진행하면서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상 훈련까지는 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스프링 캠프 참가에는 이상이 없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

LPGA 챔피언십 준우승 유소연 세계 10위 진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6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이 세계랭킹 10위 안에 진입했다.

유소연은 21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보다 2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했다.

기존 10위 박성현(23·넵스)은 11위로, 11위이던 양희영(27·PNS)은 12위로 각각 1계단씩 밀렸다.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7위에 오르고 올 시즌 최저타수상을 거머쥔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3위를 유지했다.

전인지는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2위 에리야 쭈타누깐(태국)과 함께 '톱 3'를 이루고 화려한 LGPA 투어 데뷔 시즌을 마감했다.

펑산산(중국), 렉시 톰프슨(미국), 김세영(23·미래에셋)도 각각 4~6위를 유지했다.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9위에서 7위로 2계단 상승했다.

손가락 부상 재활을 위해 일찍 시즌을 마친 박인비는 랭킹 포인트가 지난주 6.43에서 6.41로 떨어졌는데도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장하나(24·비씨카드)의 포인트가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순위가 올랐다. /연합뉴스

동성고 출신 이원석 삼성과 27억 계약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FA(자유계약선수) 광주 동성고 출신의 내야수 이원석(30·전 두산 베어스·왼쪽)을 영입했다.

삼성은 21일 "이원석과 4년 총 27억원(계약금 15억원, 연봉 3억원)의 조건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13명이 권리를 행사한 KBO리그 FA 시장에서 3번째로 성사된 계약이다.

유니폼을 바꿔 입은 건, 이원석이 처음이다. 두산 유격수 김재호(4년 50억원)와 KIA 타이거즈 외야수 나지완(4년 40억원)은 원소속구단과 계약했다.

삼성은 "만 30세인 이원석이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기존 선수들과의 경쟁체제를 구축, 라이온즈 내야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석은 "훌륭한 구단에서 좋은 조건으로 뛰게 돼 기쁘다. 몇 차례 연락하는 과정에서 삼성 구단이 나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새로운 소속팀 삼성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은 2005년 FA 시장에서 심정수, 박진만을 동시에 영입하며 '큰 손'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이후 내부 FA만 잡으며 외부 FA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승환, 권혁, 배영수, 박석민 등 내부 FA가 팀을 떠나며 전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도 '내부 육성'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타 구단 FA에도 눈길을 줬고, 12년 만에 외부 FA를 영입했다.

삼성은 최대어로 꼽히는 외야수 최형우, 좌완 에이스 차우찬과 협상은 아직 진척되지 않았다.

/연합뉴스